

몽골-元代 문학 환경의 변화와 문학활동의 분화*

- 散曲과 雜劇을 중심으로 -

이 정 재**

<目次>

I. 들어가며	III. 몽골-원 치하의 사회 및 제도
II. 13~14세기의 사회 변동과 시기 및 지역 배경	변화와 원대 문인의 지위 변화
	IV. 몽골-원 전기 문학 활동 분석
	V. 맺음말

I. 들어가며

王國維가 《宋元戲曲考》(1912)의 서문 첫 문장에서 “무릇 한 시대에는 그 시대의 문학이 있다(凡一代有一代之文學).”라고 선언한 것은 원대의 신흥 장르였던 ‘曲’이 楚辭, 漢賦, 六朝 駢儷文, 唐詩, 宋詞의 뒤를 이은 당시의 대표 장르였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이때 ‘曲’은 물론 1본 4절 체제로 이루어진 雜劇과 그것의 음악적 바탕이 되고 있는 散曲 등의 北曲을 기본으로 하고, 넓게는 이른바 南曲으로 구성된 남방의 장편 희곡(南戲)까지를 아우르는, 상당히 포괄적인 음악-문학적 개념이었다. 이 가운데 근래까지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연구 성과도 상당히 이루어진 영역은 雜劇이다. ‘曲’ 중에서도 雜劇이 원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이 굳어지게 된 데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는 듯하다. 서양 학문이 밀

* 이 연구는 2009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서강대학교 중국문화전공 조교수

려들어오기 시작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사회 전반이 당시 중국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절망감 내지 열등감에 젖어 있던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지난한 노력의 한 고리로써, 특히 관련 연구자들 가운데 雜劇이야말로 서양의 ‘위대한’ 연극 전통에 필적하거나 비교될 수 있는, 비교적 ‘완성된’ 또는 ‘성숙한’ 형태의 문예 장르에 가까운 것으로 ‘발견’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잡극에 대한 여러 차원의 연구를 통해서 주요 작가들과 대표작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고, 잡극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야기와 인간 군상들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원대 사회의 단면을 들여다볼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런데 잡극 연구가 축적되는 과정에 몇 가지 논쟁거리가 떠올랐다. 그 중 하나는 잡극 발전 과정의 문제로, 잡극이 13세기 중엽에 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갑작스럽게 흥성한 것으로 보면서, 어떻게 상당한 준비 과정 없이 그토록 급속하게 흥성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잡극 양식 자체의 점진적 발전 과정에 대한 논증과 ‘잡극’이라는 용어의 의미변화 등에 관한 검토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일정 정도 문제가 해소되었다.¹⁾ 다른 하나는, 잡극 연구가 사회사 연구에 가지는 의의에 대한 문제로, 과연 잡극에 나타나는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원대 사회상을 어느 정도로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달리 말하면, 문학을 통해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할 때, 원대 사회의 성격을 알기 위해 잡극 이외의 다른 장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잡극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근래 송원대 남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잡극과 남희 연구의 불균형은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다. 다만, 남희는 북송 말엽에서 남송 초기에 거치는 기간에 남방, 좁게는 현재의 절강 복건에 해당하는 동남 연해 지역에서 성장한 양식이므로 1279년 원이 전국을 통일하기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송 사회의 산물

1) 초기 잡극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季國平, 《元雜劇發展史》 및 廖奔 등, 《中國戲曲發展史》 등 참고. 또한 ‘雜劇’ 용어의 의미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줄고, <송금원 연행문학사의 재인식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참고.

이다. 따라서 다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남회를 통한 몽골-원대 사회 성격 탐구는 원의 전국 통일 이후에 적용된다. 둘째,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본고에서의 주요 논점인 ‘몽골-원에 의해 중국 사회와 문학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피기 위한 논의 대상 시기와 지역별 성격에 대한 재확인 필요하다. 이 중 두 번째 문제에 대해 다음 절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원대에는 잡극과 남회 등의 희곡 양식 이외에도 다양한 문학 장르가 일부는 前代를 이어 지속적으로 유행하거나 또 다른 일부는 당시에 새로이 성장하였다. 시가 방면에서는 詩와 詞 등 기존 형식의 시가 뿐 아니라 산곡이라는 새로운 시가 형식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전통 산문 역시 작가 및 작품의 절대 수효는 많다고 할 수는 없어도 꾸준히 지어졌으며, 서사 양식으로는 비교적 장편의 평화와 단편 화본 등의 새로운 장르가 다양하게 흥기하였다.²⁾ 이들은 각각 원대 사회의 이해를 위해 서로 다른 측면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고, 특히 평화와 화본 등의 서사 자료들은 그것의 본 내용은 비록 원대 이전의 전통 사회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각 작품에 ‘묻어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원대 사회 이해의 단초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全相三國志平話》의 경우, 비록 이 작품이 삼국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거나 언어적 표현 등이 편찬 당시의 사회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³⁾ 다만, 이 역시 ‘몽골-원에 의해 중국 사회와 문학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피는 데에 충분하고 유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도 정밀한 가설 수립을 통해 그것을 하나하나씩 점검해나가는 치밀한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 잡극과 함께 주목하는 양식은 전통 시가인 詩詞를 이어 새롭게 등장한 散曲인데, 이 신흥 장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

2) 鄧紹基, 《元代文學史》 및 楊籙, 《元代文學編年史》 등 참고.

3) 송원 평화에 대해서는 김진곤, 《송원 평화 연구》 참고.

음과 같다. 즉 그것이 잡극과 함께 13세기 중국의 사회 변동 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한 장르이고, 따라서 사회적 변화가 문학 환경의 변화에 끼친 영향을 직접 거론하기 적합한 자료라는 점, 그리고 역으로 그것이 그러한 문학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학적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점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산곡의 발전사에 대한 관찰을 통해 원대 사회의 변화상을 짚어볼 수 있고, 산곡 작가와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이 인접 장르 특히 조상 격인 전통 시사 및 형제적인 동시대 잡극과 어떻게 관계 맺고 서로의 문학적 영역을 마련해 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해당 시기의 전통 시가, 신흥 시가, 그리고 희곡 등의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전체적 조망과 함께 각 장르에 따라 작가 분포와 작품의 성격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혹은 겹치는지를 살피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함을 뜻한다.

아울러 산곡과 잡극 등의 신흥 문예가 등장할 수 있었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문인-지식인의 사회활동 환경의 변화, 문인의 지위 변동, 문인의 문예활동 개입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당시의 문예 작품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개별적 열거와 평가 이외에, 앞과 같은 문학 환경의 변화에 의해 문학 활동(글 쓰기)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한 보다 추상화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어쨌든 본고의 논의 대상 시기가 비록 다른 왕조에 비해 길지 않다고는 하나 작가와 작품은 여전히 손쉽게 다루기 어려울 만큼 방대하고, 따라서 논의가 구체적인 작품 성격의 분석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불가피하리라고 예상된다. 다만 본고의 거시적 조망을 통한 예비 작업이 향후 구체적 작품의 분석에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II. 13~14세기의 사회 변동과 시기 및 지역 배경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 우구데이(1229~1241 재위)가 지휘하는 몽골 군

대가 1233년 금의 마지막 수도 南京(지금의 河南 開封)을 함락시키고, 이듬해 2월 금의 마지막 황제가 蔡州城(지금의 河南 汝南)의 전투에서 사망함으로써, 1142년 송과의 화친 조약 이후 90년 가까이 화북 지방을 통치해온 금 왕조는 멸망을 고하였다. 이후 구육(1246~1248 재위)과 몽케(1251~1259 재위)의 뒤를 이은 쿠빌라이(1260~1294 재위) - 칭기스칸의 손자 - 는 즉위한 지 10여년만인 1271년에 국호를 '元'으로 선포하고 대륙의 정통 왕조임을 천명한 후, 1279년 남방의 宋마저 완전히 멸망시킴으로써 그동안의 분열 상태를 마감하고 전국을 통일함과 동시에 세계제국으로서의 확장을 더욱 가속화한다.⁴⁾ 이처럼 13세기의 중국은 거시적으로는 전쟁과 왕조 교체가 이어지는 극심한 격변의 시기였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금 멸망 이후 2~30년 간의 화북 지역과 송 멸망 이후의 전국은 재난과 혼란을 수습하고 행정과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소강 상태에 있었고, 수년에 걸친 남송과의 전쟁을 거쳐 통일을 완수한 후에도 전쟁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통일 왕조의 기틀을 다져나가기 위해 제도적 행정적 정비를 추진해 나가는 단계를 밟아나갔다.

몽골-원의 소수 지배층이 여진 및 남송의 다수 한족을 통치하게 되면서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장기적인 또는 비교사적인 관점에서 원 왕조가 송과 명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여 이른바 전통 문화의 지속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⁵⁾ 전쟁을 통한 이민족의 통치라는 새로운

4) 몽골이 금과 남송을 멸망시키고 대륙의 승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Franke, Twitchett(1994),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이하 CHC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의 제3~5장 참조. 또한 이 시기 사회변동이 잡극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Stephen H. West, "Mongol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Northern Drama", John D. Langlois, Jr. ed., *China under Mongol Rule* 참조.

5) *CHC6*, pp.616~617. 특히 1240년 몽골 군대가 러시아를 파괴하고 이어 킵차크 칸국이 러시아 공국을 점령하여 1480년까지 200여년 동안 통치함으로써 러시아 역사의 근본적인 변화와 변환을 이끌어낸 데 비해 중국의 경우는 몽골로 인해 러시아의 경우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비교하는 점이 그러하다.

상황에 마주친 한인들의 심리는 앞날에 다가올 변화와 자신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불행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원이 남송을 멸망시키는 과정은 몽골이 금을 멸망시키는 과정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금을 멸망시킬 때 기본적으로 점령한 도성의 피정복민을 대량으로 살육했던 것에 비해, 남송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과정에서는 금 정복 때와 같은 대량 살육을 재현하지 않은 것이다. 금의 멸망 과정에 대해 劉祁(1203~1250)는 《歸潛志》에서 금의 마지막 수도였던 南京(開封)이 함락되던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회고하고 있다.

(1233년) 4월 20일, 使者가 三敎人 및 의원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北方(몽골) 군대가 들이닥쳐 대약탈을 행하였다. 崔立은 이때 성 밖의 진영에 있었는데, 병사들은 먼저 崔立의 집에 들어가서 그 妻妾과 패물을 거두어 나왔다. 崔立이 귀가하여 보고는 크게 놀랐으나 누가 그랬는지는 감히 묻지 못했다. 대신과 부호들의 집도 모진 고초 끝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三敎人과 의원 등도 青城(도성) 옆에서 남김없이 죽임을 당했다. 얼마가 지난 후에, 다시 三敎人들을 성안으로 들여보내고 백성들이 북방 병사들과 교역하는 것을 허락했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남은 금붙이나 비단을 북쪽에서 들어온 쌀, 보리와 바꾸어 먹었다. 그러나 이 역시 북방 병사들에 빼앗긴 것들이 많았지만 감히 말하지는 못했다.⁶⁾

이를 보면 당시 南京의 백성들은 기아와 전염병으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북방(몽골) 군대의 침입으로 다수 목숨을 잃거나, 살아남았더라도 심신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었음이 잘 드러난다. 이에 비해 원이 남송을 멸망시키는 최종 단계에서 황제 쿠빌라이는 “(한인들의) 신임과 지지를 얻기 위해 남방의 재물을 약탈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야만적

6) 劉祁, 《歸潛志》, 卷11, p.130 “四月二十日, 使者發三敎醫匠人等出城, 北兵縱入, 大掠. 立時在城外營中, 兵先入立家, 取其妻妾、寶玉輦以出. 立歸, 大慟, 亦不敢誰何. 大臣富家多被茶毒死者, 而三敎醫匠人等, 在青城側亦被剽奪無遺. 俄, 復遣三敎人入城, 許百姓與北兵市易. 城中人以所餘金帛易北來米麥食之, 然多爲北兵劫取, 莫敢語.”

인' 점령자로 나타날 수는 없었다. 그는 반대로 몽골인을 위해 봉사하면서도 해당 지역의 백성들을 지나치게 압박하지 않는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다.”⁷⁾ 쿠빌라이는 이와 함께 ‘南人’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하려고 노력하기도 했고, 이에 대해 일부는 관리가 되기를 소극적으로 거절하거나 文天祥(1236~1282)의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쿠빌라이가 남방 정복지에 대해 취한 태도는 자신의 숙부인 우구데이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고, 이것은 흔히 몽골(원)이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정복자로서보다는 중국의 통치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몽골(원)이 금과 남송을 정복할 때 드러내 보인 이러한 차이는 금 멸망 직후의 화북 사회와 남송 멸망 직후의 남방 사회의 피정복민들의 심리상태에 큰 차이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다. 즉 금의 遺民에 비해 남송의 遺民들이 가진 공포감이나 무력감은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원의 남송 정복이 이전에 비해 윤택적이었다고 해도 정복을 당한 입장에 있었던 남송의 遺民들은 전통 왕조였던 송대와는 이질적인 세력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했고, 이들이 새로운 황제와 관리의 통치를 대하는 태도에는 복잡하고도 兩價的인 감정이 없을 수가 없었다. 즉 한인 사대부의 입장에서 볼 때 1280년대는 10세기 이후 전국이 다시 통일을 이룩한 시대라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라면 통일이 이민족에 의해 이루어진 점은 부정적인 요소였다. 그러나 중국의 봉건 체제를 지탱하는 이념적 틀을 받아들이고 전국의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다스릴 때, 최고통치자가 한족이든 이민족이든 이른바 ‘천명’이 주어진 것으로 본다는 논리로 보면, 쿠빌라이로부터 확인되는 유가적 문관 통치 방식은, 그것에 비록 불평등한 요소가 많다고 해도, 한인 사대부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따라서 한인들은 일단 몽골(원)이 유가적 가치에 기초하여 통치하는 방향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7) *CHC6*, p.436.

그러나 이념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워도 실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불평등한 요소’는 매우 심각하여, 한인 사대부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부심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극히 어려웠다. 제도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론하겠지만, 한인 사대부들 사이에 이러한 심리가 널리 퍼져 있었던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⁸⁾

본고가 제시하는 가설은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문인 계층의 성격과 지위가 이민족(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재구성되고 그로 인해 문학 활동에도 전에 없던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몽골의 중국 정복 이전에 여진의 금 왕조가 화북을 점령하면서 북방 문인이 받은 영향과 변화도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금 왕조 직전의 요(거란)나 서하(탕구트) 왕조가 각각 오늘날 중국의 동북 지역과 서북 지역에 치우쳐 존속하면서 당대 이래 중국의 중심으로 생각해온 중원 지방을 직접 공략하거나 점령하지 않았던 데 비해, 금 왕조는 송의 수도였던 개봉을 점령함으로써 송에 커다란 정치적 행정적 타격을 입혔고 그 결과 남북조 시대 이후 다시 한 번 본격적인 남북 대치 시대를 열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같은 사회적 변동이 특히 북방에 거주하던 한족 문인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금대에는 王若虛(1174~1243)나 元好問(1190~1257) 등의 전통 문인 몇 사람과 신흥 장르인 諸宮調 창립과 전승에 기여한 孔三傳과 董解元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문인들의 행적을 조사할만한 자료가 매우 적다. 물론 史書에는 보다 많은 문인들에 대한 전기가 남아있기는 하나 이들은 대부분 詩文 등을 지은 전통 문인이고 신흥 장르를 담당한 작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전통 장르와 신흥 장르 사이에 충분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대 문학 환경과 문학 활동의 변화 양상은 앞으로 진일보하게 연구될 필요는 있을 것이고, 특히 금의 멸망 전후에 걸쳐 활동한 문인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루고자 한다.

8) 원의 중국 통일 이후에 주목되는 ‘사회심리적 요소’에 대해 다음을 주로 참고하였다. *CHC6*, pp.622-627.

王國維는 《宋元戲曲考》 ‘元劇之時地’ 부분에서 원 잡극의 시기구분을 하면서 잡극의 발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몽골시대(1234~1279)-《錄鬼簿》 상권에 수록된 57인이 대부분 이 시기에 활동하였음. (이 중 馬致遠, 尚仲賢, 戴善甫, 姚守中, 李文蔚, 趙天錫, 張壽卿 등이 남방에서 활동한 것은 통일 즉 1279년 이후임)
2. 통일시대(1280~1340)-남방 출신 및 북방 출신 남방 이주 작가들.
3. 至正시대(1341~1368)-《錄鬼簿》 작자인 鍾嗣成과 동시대작가들.

왕국유의 이러한 시기 구분은 기본적으로 왕조 교체라는 사회 변동에 따른 잡극 창작 및 공연 활동의 변화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문제의식과 매우 근접해 있다. 다만 왕국유의 구분은 《錄鬼簿》에 수록된 잡극 작가들의 분포 상황 전반을 세 시기로 나누어 보기 위해 시도된 것인데, 이 중 ‘지정시대’는 사회적 성격 면에서 ‘통일시대’와 질적인 차이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본고에서 별도로 특별하게 다루지는 않고자 한다. 어쨌든 본고에서는 1220년대 전후부터 금이 멸망한 1234년까지를 금 말엽, 1234년부터 남송이 멸망한 1279년까지를 몽골-남송 대치기,⁹⁾ 1279년 이후 1368년 원이 멸망하기 전까지를 원 통일기로 부르면서 각 시기별 문학 환경의 성격과 그 변화 및 차이, 그리고 그로부터 유도되는 문학 활동의 변화에 대해 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기구분에 따라 문학 활동이 이루어진 공간을 살펴보면, 금 말엽과 몽골-남송 대치기에는 회하 이북의 화북 지역의 문학 활동이 이민족에 의한 사회 변동을 살피는 데에 유효하고, 원 통일기는 남북의 왕래와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문학 활동의 공간이 전국적 범위로 확장되어 묶이게 된다. 따라

9) 1234년부터 1271년까지는 몽골-남송 대치기, 1271년부터 1279년까지는 원-남송 대치기라고 세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몽골과 원의 명칭 차이만큼 몽골(원)의 정책적 지향이 달라진 점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같은 세력에 의한 영토 분점이고 한족 문인의 지위에 결정적 변화가 생겨났다고 전제할만한 정황도 뚜렷이 보이지는 않는다는 차원에서 일단 따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살펴보고, 논의 과정에서 특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언급하도록 한다.

서 이어 살펴볼 문학 작가와 작품의 대상 시기와 지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시 기 구 분		논의지역
금 말엽 (1220전후~1234)	약 15년	華北
몽골-남송 대치기 (1234~1279)	45년	華北
원 통일기 (1279~1368)	89년	全國

아울러 위의 세 시기-지역을 아우르는 명칭으로는 ‘금-몽골 교체기 및 몽골-원대’ 정도가 보다 정확하겠으나 금대 문학은 이후 시기와의 연관이 라는 조건에서 다루고자 하는 까닭에, 금 멸망 이후에 초점을 맞추어 ‘몽골-원(대)’를 주로 살펴도록 한다. 어떻든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이나 멸망 등의 중대한 사회 변동에 따른 문인들의 문학 활동의 변화 양상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것이므로, 위 시기 중 몽골-남송 대치기 및 원이 남송을 멸망시킨 직후로부터 약 20여년 동안인 원대 초기의 상황이고, 왕국유의 분류에 따라 말한다면 ‘몽골시대’ 전체와 ‘통일시대’ 초반부가 본고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는 시기인 것이다.

Ⅲ. 몽골-원 치하의 사회 및 제도 변화와 원대 문인의 지위 변화

통상적으로 몽골이 금을 멸망시킨 13세기 중반을 전후로 한 사회 변동은 전쟁에 따른 인구의 급감과 이민족 통치에 따른 중국적 질서의 일정한 변화 등이 대표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문인의 지위와 관련된 제도 변화로는 민족 차별 정책과 과거제도의 중단 등이 거론된다.¹⁰⁾ 먼저 인구 변화와 관련해서, 1109년 북송의 인구는 1억을 상회했고, 그로부터 약 1세기가

10) 이하는 *CHC6*, pp.618-622의 서술을 주로 참고함.

지난 1200년을 전후로 한 시기의 금과 남송의 인구 총합 역시 1억을 약간 넘었는데, 원이 남송을 멸망시키고 10여년이 지난 1290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채 6천만 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이 되며 이러한 상황은 다시 80여년이 지난 명대 초기에도 거의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금과 남송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급감하고, 이러한 수치는 명대 초까지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¹¹⁾ 이러한 설명은 전국적으로 인구가 급감한 것을 말해주지만 다음 표는 금 말엽 20여 년 동안 화북 지역의 인구가 840만 호에서 110만 호로 급감한 것을 보여준다.¹²⁾ 이는 무엇보다도 전쟁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인구 이외에도 전란을 피해 남하한 인구가 해당 시기에 급격하게 늘었음을 말해주면서도, 동시에 강남 지역의 인구가 표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금 말엽에 남하한 인구만큼의 강남 인구 감소가 있었다는 것을 뜻할 것이므로, 남북 모두 커다란 전란 속에서 살아간 것임을 알게 해 준다.

	금-남송 대치기	금 멸망(1234)	몽골-남송 대치기	원 통일기
화북	840만(1207)	110만	194만(1270)	1,320만 (1290)
강남	1,267만(1223)	-	1,175만(1276)	

* 단위: 戶 (戶당 인구수는 시기별로 대략 4~5명으로 추산)

이러한 재난은 계층별로 차이는 있었을 수 있으나 문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막대한 희생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인들은 혼란의 와중에 포로로 잡혀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한 재난을 직접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목도하거나 전해들은 재난

11) 이 수치는 운남이나 변방 그리고 산지 등의 일부 지역이나 승려, 병사 등의 일부 계층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만, 이들이 포함된다 해도 당시 인구가 급감했다는 결론을 뒤집을 만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12) 吳松弟, 《中國人口史》 제3권 遼宋金元時期.

이 이들의 내면심리에 가했을 충격과 영향은 미루어 짐작하기에 충분하다.¹³⁾

전쟁 등으로 인한 인구의 급감이 모든 계층의 생존, 생활, 생각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다면, 민족 차별 정책과 과거제도의 중단과 민족 차별 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이민족 통치에 의한 중국적 질서의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문인 계층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몽골-원 통치세력은 민족 성분에 따라 몽골인, 색목인, 한인, 남인 등의 네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민족별로 부역, 관리 선발, 민형사상의 권리, 양형 차이, 의무 면제, 특권 등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차등 정책을 펼쳤다.¹⁴⁾ 소수인 몽골인과 그들의 협력자인 색목인이 다수인 한인과 남인을 통치하는 방식이었다. 한인은 금 멸망 이후 몽골의 통치 영역으로 편입된 화북 지역에 거주하던 한인, 탕구트인, 발해인, 고려인 등의 2천만 명을 가리키고, 남인은 남송 멸망 이후 원 통치에 편입된 5천만 명 이상의 남송 유민을 가리킨다. 한인과 남인은 각각 이전 시대에 관직자 또는 관직 후보자의 지위를 가졌고, 관직에 뜻이 없는 사대부들도 사회의 중간 지도층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부했던 이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이들이 몽골-원 시대에 들어 자신이 피지배자의 지위로 전락했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과정은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4등급 제도의 실시에 따른 관직 진출 기회의 봉쇄와 심리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문인 숭상의 기풍이 사라지지 않았고 원래 사회적 상층부에 속하던 사람들의 경제적 기반이 심각하게 붕괴된 것도 아니라는 지적은 몽골-원 사회의 변화와 지속이라는 양면을 균형있게 바라보게 해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이른바 ‘九儒十

13) 몽케 재위 시기에 화북 지방을 관장하던 쿠빌라이가 儒者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몽골이 금을 멸망시킬 때 노예로 전락한 문인들을 찾아 원래 지위를 회복시켜 주고자 하고, 즉위 후인 1276년에는 화북 지방에서 4천 호에 儒戶의 자격을 부여한 것도, 해당 시기 문인의 지위 변화와 그들의 내면심리에 가해진 충격이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해 준다. *CHC6*, 635~638.

14) *CHC6*, pp.627-635.

丐'라고 하는 모멸적인 표현이 후대에 유행하기도 했지만,¹⁵⁾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적 불안정과 심리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한인 사대부들은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 한인 사대부들이 사회적으로 여전히 존경받고 문화적으로 자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자신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린 것은 오히려 더욱 깊은 심리적 갈등과 고민을 하게 만드는 외부 요소였던 점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본래 희망하던 진로를 변경하여 경제적 기반을 가진 사람들은 예술, 학문, 경전 등에 매진하거나 취생몽사의 태도로 살아가고, 경제력이 없는 더욱 많은 사람들은 교사, 의사, 점술사, 그리고 더욱 낮은 직업, 예를 들어 극작가, 연출가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과거제도와 관련하여, 오고타이의 금 정복이 이루어진 1234년부터 중단된 과거제도는 1315년에 회복될 때까지 80여 년 동안 시행되지 않으면서,¹⁶⁾ 이 시기 과거 이외의 관직 진출 경로는 매우 다양하여, 주채혁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¹⁷⁾

- a. 薦辟類 - 薦舉, 自薦, 辟署(지방관 자체 임용), 吏道(胥吏의 승급)
- b. 蔭緣類 - 蔭任(子弟 임용), 宿衛(주변국 불모), 父死王事(창업기 부친 사망 승계), 外戚(황실의 외척), 婚貴(황실 및 고관 사위)
- c. 雜途類 - 宦者(내시), 方伎(天文, 醫筮, 數算), 佞倖(아첨), 賫納(재물기부), 通譯, 懷柔(반란지도자 회유)

15) 宋 말엽 사람 鄭恩肖의 《所南集》에 “一官, 二吏, 三僧, 四道, 五醫, 六工, 七獵, 八民, 九儒, 十丐.”라는 구절이 대표적인데, 사료의 근거가 없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鄧紹基, 《元代文學史》, p.43.

16)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1214년 금이 中都(북경)에서 南京(개봉)으로 천도하면서 현재의 산둥과 하북 일대가 금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고 하남, 산서, 그리고 섬서 일부 등만 관할하게 되었을 때부터 화북 지방에서는 과거제도가 시행되지 못했으므로, 실제 과거 실시는 약 100년 동안 중단되었다.

17) 주채혁, 《원조 관인층 연구》, 제3장의 전체 내용 및 각 표 종합 정리.

- d. 軍功類
e. 歸附類 - 귀순자

또한 이들이 조사대상이 된 전체 관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조사되고 있다.¹⁸⁾

	전기	중기	말기	소계
과거류	0	2	90	92
천벽류	43	100	117	260
음연류	67	34	28	129
잡도류	8	16	10	34
군공류	148	37	25	210
귀부류	119	33	0	152
소 계	385	222	270	877

* 전기(1206~1259), 중기(1260~1307), 말기(1308~1368)

위의 조사를 보면 몽골-원 시기 전반에 걸쳐 천벽류, 군공류, 귀부류, 음연류 등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군공류와 귀부류는 몽골이 금을 멸망시킨 시기에 집중되고 있고, 천벽류는 점차 늘어나고 음연류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중기와 후기에 주요 관직 진출 경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천벽류는 추천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부정부패가 끼어들 소지가 특히 많아, ‘군자’로서의 이상을 펼쳐가고자 하는 원칙주의를 고수하려는 儒者들로서는 원치 않게 변화된 현실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조건이 형성되었다. 또한 1314년 과거제도가 회복되고 나서도 漢人 進士는 매년 평균 10여명 밖에 선발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부정부패로 얼룩지는 현실을 바라보는 儒者들의 심정은 과거제도 중단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¹⁹⁾

18) 주채혁, 위의 책, 제3장.

정리하면, 몽골-원 시기 특히 금과 남송에 대한 정복 전쟁을 전후하여 살았던 한인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전쟁과 피난 등에 의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대에 민족 차별 정책과 과거 제도 중단의 직접적 피해자가 되어 깊은 좌절감을 지니고 살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통 문화의 담지자로서의 자아정체성과 사회적 존경, 그리고 경제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부유한 소수는 학문과 예술에 매진하고 빈곤한 다수는 생계를 위한 새로운 직업들을 찾아나가면서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적응해 나갔다. 그리고 전통 사대부(문인)의 이와 같은 대응과 적응은 문학 활동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IV. 몽골-원 전기 문학 활동 분석

楊籙은 《元詩史》에서 원대 시인이 4천명 이상으로 원대 문학 가운데 작가가 가장 많은 장르이고, 원대 시의 수량은 약 12만 4천여 수로, 2200여명이 5만 수를 지은 唐詩보다는 훨씬 많고, 9천여 명이 27만수를 지은 宋詩의 절반 가량이지만 송대의 존속 기간이 3백여 년으로 원대의 약 두 배가 되는 기간임을 감안하면, 원대 시의 창작은 결코 부진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요지의 언급을 하고 있다.²⁰⁾ 더욱이 앞서 보았듯이 전체 인구가 북송대 약 1억 명에서 원대 약 6천만 명으로 40% 가까이 줄어들었음을 고려하면 원대의 단위 시간 및 총인구 당 시인의 비율 및 시작품의 수량은 송대의 두 배라는 계산도 가능하므로, 원대에는 송대보다도 오히려 시가 더욱 널리 지어졌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시의 수량이 많거나 빈번히 지어졌다는 사실이 반드시 그 시대의 시의 예술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당시 시인(문인/사대부)들이 이전 시대의 작시 전통

19) *CHC6*, p.638. 과거제도가 회복된 이후 과거 시험은 1315년~1366년의 약 50년 동안 3년마다 1회씩 총 16회 실시되었고, 여기에서 1139명의 진사가 선발되었으며, 이중 절반은 몽골인과 색목인이 차지하였다.

20) 楊籙, 《元詩史》, p.45.

과 단절하기보다는 그 전통을 유지 발전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는 충분하다 하겠다. 이러한 추정은 앞서 살핀 바처럼 문인/사대부들이 변화된 시대 상황에 적응하면서도 전통 문인/사대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고 실제로 상당 부분 유지되었다는 점과도 맥락이 맞닿는다. 어쨌든 몽골-원대의 시는 작자층이나 내용이 세부 시기별로 차이는 있을 지라도,²¹⁾ 전체적으로 볼 때 적어도 양적으로는 이전 시대의 지위를 잃지 않고 문인/사대부의 필수 소양으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몽골-원대를 대표하는 장르로 통상 잡극과 산곡을 들지만, 平話 등의 서사 장르와 통일 이후 남방에서 더욱 발달한 南戲도 당시에 성행한 장르로 빼놓을 수 없다. 특히 《三國志平話》, 《武王伐紂書》, 《秦併六國平話》 등의 講史類 평화는 당시의 구비서사 전통을 집약하고 후대 장회소설의 기초를 다진 중요한 작품들이고, 이른바 ‘荊柳拜殺’의 4대 남희와 원 말명초의 《琵琶記》 또한 남희 뿐 아니라 전체 연극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작품들이다. 다만 이들은 평화처럼 작가 또는 편찬자의 신상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거나, 남희의 경우처럼 대체로 원 중엽 이후의 작품들이 많아서 몽골-원 초기의 사회변동에 따른 작가들의 문학 활동의 변화를 가늠하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결국 이 시기 문학 환경 변화에 따른 문학 활동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새롭게 등장한 잡극과 산곡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무슨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잡극과 산곡의 兼作은 얼마나 보편화되었는지, 겸작 작가들은 잡극과 산곡을 각각 어떠한 태도로 대했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중 작가와 겸작 상황 등 일부는 주요 자료를 참고하여 대략이나마 계량적인 파악이 가능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사항에 대한 추론에 이르고자 한다.²²⁾ 먼저 散曲부

21) 鄧紹基, 《元代文學史》에 소개된 시 작품과 시인들의 신분을 보면 전기는 대체로 수량이 적고 시인은 관직을 거절한 遺老가 많은 데 비해, 후기는 수량이 많고 고급 관직을 지낸 자가 많으며 非漢族 문인들도 상당수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에서 상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터 살펴본다.

	성명	생졸연도	출신	관직	비고
1	元好問	1190~1257	산서	元 不仕	
2	商 衡	1190?~?	산동	“學士”	
3	孫 梁	원호문과 동시대	하북		
4	楊 果	1197~1269	하북	元 懷孟路總管 등	
5	杜仁傑	1201~1283	산동	不仕	
6	商 挺	1209~1288	산동	樞密院副使 등	
7	嚴忠濟	1210?~1293	산동	行江浙省事 등	
8	劉秉忠	1216~1274	강서	光祿大夫 등	
9	彭壽之	1217?~1300?	?		
10	王修甫	1219?~1273	산동		
11	徐 琰	1220?~1301	산동	翰林學士承旨 등	
12	荊幹臣	1220?~1281	산동	參軍	
13	王嘉甫	1225?~1302?	하북	提刑按察使 등	
14	侯克中	1225?~1320?	하북		
15	白 樸	1226~1306후	산서	不仕	잡극 검작
16	胡 祗 遜	1227~1295	하북	江南浙西道提刑按察使 등	
17	王 恂	1227?~1304	하남	翰林學士 등	
18	魏 初	1231~1292	하북	南臺中丞 등	
19	關漢卿	?~1305?	북경	“太醫院尹”	잡극 검작

22) 해당 시기 작가의 기본 정보에 대해 현재로서는 齊森華 등 主編, 《中國曲學大辭典》의 ‘曲家’ 부분이 가장 상세하고 편리하다. 또한 鄧紹基의 《元代文學史》도 참고하였다. 《中國曲學大辭典》은 ‘曲家’를 원칙적으로 생존 연대순에 따라 수록하고 있으나 원대 곡가의 경우 생존 연대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매우 많은 관계로 사전의 수록 순서가 반드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어서 한계가 있다 하겠으나, 종사성의 《녹귀부》에 수록된 작가들을 참고하면 대체로 원말명초 이전 시기의 작가들을 앞에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도 鍾嗣成까지만 살피고, 원말명초의 작가들에 대해서는 앞서 王國維가 말한 ‘至正時代’를 논의에서 제외한 것과 같은 이유로 제외한다. 표에서 지명은 편의상 현재의 지명으로 표기하였다.

20	王和卿	관한경과 교유	하북	不仕	
21	盧摯	1235~1300	하남	翰林承旨 등	
22	伯顔	1236~1295	서역	中書左丞相 등	몽골 황족
23	劉因	?~1293	하북	右贊善大夫 등	
24	姚燧	1238~1313	요녕	翰林學士承旨 등	
25	張弘范	1238~1281	하북	益都淄萊等路行軍萬戶 등	
26	劉敏中	1243~1318	산둥	翰林承旨 등	
27	陳草庵	1247~1320?	북경	각지 廉訪使 등	
28	孔文升	1250?~?	?	浙西憲掾 등	
29	趙孟頫	1254~1322	절강	翰林學士承旨 등	宋 宗室
30	不忽木	1255~1300	서역	吏工刑部尙書 등	쿠차 출신
31	馮子振	1257~1337?	호남	集賢待制 등	
32	馬致遠	1264전~1323?	북경	江浙省務官	잡극 겸작
33	張子益	元 初期	?		
34	盍西村	元 初期	강소		
35	鮮于樞	?~1302	북경	江浙行省都事	
36	趙巖	?~?	강소	魯王 文學侍從	
37	馬彥良	세조 연간	하북	都事	
38	奧敦周卿	세조 연간	산둥	侍御史 등	여진족
39	庾天錫	?~?	북경	中山府判 등	잡극 겸작
40	王實甫	?~1324전	북경	초기 벼슬, 후기 은퇴	잡극 겸작
41	李文蔚	백막과 교유	하북		잡극 겸작
42	李子中	元 前期	북경	知事 등	잡극 겸작
43	康進之	元 前期	산둥		잡극 겸작
44	孔文卿	元 前期	산서		잡극 겸작
45	黃公望	1269~1354	강소		
46	張可久	1270전~1340후	절강	桐廬典史 등	
47	馬謙齋	장가구와 교유	?	北京 出仕, 杭州 隱居	
48	高棅	장가구와 동시대	북경		
49	張養浩	1270~1329	산둥	禮部尙書 등	
50	任昱	장가구와 동시대	절강		

51	張子堅	장가구와 동시대	?		
52	曹德	원말 주	?	衢州路吏 등	
53	虞集	1272~1348	강서	奎章閣侍書學士 등	
54	薛昂夫	1273?~1350후	-	衢州路總管 등	위구르족
55	鄭光祖	1365?~1324전	산서	"杭州路吏"	잡극 검작
56	白賁	?~1330?	절강	文林郎南安路總官府 등	
57	施惠	1295전후	절강		잡극 검작
58	劉時中	?~1335?	강서	小吏	
59	吳弘道	1300전후	하북	江西行省檢校掾史	잡극 검작
60	于志能	?~?	?		
61	周德清	1275?~1330후	강서		
62	喬吉	?~1345	산서		잡극 검작
63	吳西逸	교길과 동시대	?		
64	睢景臣	?~?	강소		잡극 검작
65	周文質	?~1334	절강	路吏	잡극 검작
66	朱凱	?~?	?	浙江省掾	잡극 검작
67	王擘	?~?	절강		잡극 검작
68	王仲元	1300전후	절강		잡극 검작
69	孛羅御史	1316전후	-	御史大夫	몽골족
70	鍾嗣成	1275?~1345?	하남		잡극 검작

위 표에서 1~5는 대부분 金의 遺老의 성격이 강하고, 이후 작가들은 크고 작은 관직을 가진 경우가 많아 대체로 원의 통치를 받아들였으리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²³⁾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자 70명 가운데 관직경험자가 45명, 관직거부자 3명, 그리고 관직경험 여부가 불명확한 사람이 22명으로, 관직경험자의 비율이 64%에 이른다. 다시 45명의 관직경험자 중 고위직을 거친 사람은 總管(2), 樞密院副使, 光祿大夫, 翰林學士 및 翰林

23) 다만 白樸과 같은 경우는 부친이 金의 고위관료였고 어렸을 때 원호문의 도움을 받아 자랐기 때문에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잡극 창작에 힘을 쏟은 사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學士承旨(6), 提刑按察使(2), 南臺中丞, 中書左丞相, 右贊善大夫, 行軍萬戶, 廉訪使, 尙書(2), 集賢待制, 文學侍從, 奎章閣侍書學士, 侍御史, 御史大夫, 中山府判, 都事(2), 知事, 參軍 등 모두 29명으로 64%에 이르고, 路吏(3), 掾史(3), 務官, 典史, 文林郎, 行江浙省事, “太醫院尹”, 기타 小吏 등 하위 관직자가 12명으로 27%에 이르며, 관직이 불명확한 사람이 4명이다. 이러한 결과는 몽골-원대 산곡 작가들 가운데 새로운 왕조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보여 준다. 이는 반대로 고위관직자들 가운데 산곡에 흥미를 갖고 창작을 즐긴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위층들이 산곡을 즐겨 창작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당대 시인이나 송대 시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당시에 산곡이 점차 민간의 장으로부터 문인관료층으로 확대되면서 적지 않은 고위관직자들이 산곡을 자신의 정서를 담아내고자 하는 새로운 시가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추론은 해당 작가들의 개별 작품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작가가 산곡에 자신의 정서를 얼마나 투영했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이 뒷받침될 때 보다 진전된 논증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다음으로 잡극 작가의 상황에 대해 정리해본다. 《中國曲學大辭典》에 수록된 잡극 작가들 중 鍾嗣成까지의 작가들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열된다.

	성명	생졸연도	출신	관직	비고
1	白樸	1226~1306후	하북		산곡 겸작
2	關漢卿		북경		산곡 겸작
3	楊顯之		북경		
4	費君祥		북경		
5	高文秀		산둥	東平府學生	
6	張時起		산둥	東平府學生	

7	馬 致 遠		북경	江浙省務官	산곡 겸작
8	費 唐 臣		북경		
9	鄭 廷 玉		하남		
10	庾 天 錫		북경	中山府判	산곡 겸작
11	王 實 甫		북경		산곡 겸작
12	李 文 蔚		하북		산곡 겸작
13	李 子 中		북경	知事	산곡 겸작
14	紅字李二		섬서		
15	花 李 郎				
16	李 時 中		북경	中書省掾	
17	康 進 之		산둥		산곡 겸작
18	孟 漢 卿		안휘		
19	李 寬 甫		북경	刑部令史	
20	李 潛 夫		산서		
21	陳 寧 甫		하북		
22	陸 顯 之		하남		
23	狄 君 厚		산서		
24	孔 文 卿		산서		산곡 겸작
25	張 壽 卿		산둥	浙江省掾	
26	彭 伯 成		하북		
27	汪 澤 民		하북		
28	李 直 夫		하북	廉訪使	여진인
29	宮 天 庭		하남	學官	
30	楊 梓	?~1327	절강	杭州路總管	
31	鄭 光 祖		산서		산곡 겸작
32	施 惠		절강		산곡 겸작
33	趙 子 祥				
34	吳 弘 道		하북		산곡 겸작
35	喬 吉	?~1345	산서		산곡 겸작
36	睢 景 臣				산곡 겸작
37	周 文 質	?~1334	절강	路吏	산곡 겸작

38	陸 登 善		절강		
39	朱 凱			浙江省掾	산곡 겸작
40	王 曄		절강		산곡 겸작
41	王 仲 元		절강		산곡 겸작
42	鍾 嗣 成		하남		산곡 겸작

물론 이들 이외에도 원 잡극 작가로 잘 알려진 작가들이 많이 있으나, 생평과 사적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²⁴⁾ 또한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작가들이 관직을 갖지 않았거나 관직을 가진 경우라도 務官, 路吏, 掾吏 등의 하급관직자가 다수이고, 고위관직자로는 염방사를 지낸 여진인 이직부와 총관을 지낸 양재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잡극 작가들은 대부분 전업 작가로서 잡극을 창작하거나 편찬한 사람들과 고위관직자는 극소수라는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 산곡 작가 70명 가운데 잡극을 겸한 사람은 19명으로 그 비율은 27%인데 비해, 잡극 작가 42명 가운데 산곡을 겸한 사람이 19명으로 4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해당 시기 산곡 작가가 잡극 작가보다 많았다고 보기보다는 잡극 작가 중 활동 시기를 알기 어려운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곡 작가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인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의 각주에서 나열한 생평과 사적을 알 수 없는 잡극 작가들 30여명을 해당 시기에 활동한 사람으로 포함시켜본다면 산곡 작가와 잡극 작가의 수적인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산곡 작가와 잡극 작가가 상대 장르를 겸작한 경우는 3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체로 10명에 2~3명이 상대 장르를 겸작하였다는

24) 吳昌齡, 武漢臣, 王仲文, 李修卿(將仕郎), 尙仲賢(江浙行省務官), 石君寶, 紀君祥, 于伯淵, 戴善甫, 張國賓(教坊勾管), 王廷秀, 姚守中(平江路吏), 李好古, 趙文敬(教坊色長), 李取進, 梁進之(縣尹), 王伯成, 孫仲章, 趙明道, 趙公輔, 岳伯川, 顧仲清, 石子章, 劉唐卿, 史九敬先, 金仁傑, 范康, 曾瑞, 沈和, 鮑天祐 등. 괄호 안은 관직명.

추정이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추론을 밀고 나가면 해당 시기에 조사된 산곡 작가 70명과 잡곡 작가 70명(추정치)을 더한 140명 중 19명이 산곡과 잡곡을 겸작한 사람이므로, 전체 숫자는 140명에서 19명을 뺀 120명 내외가 된다. 결국 산곡만 창작한 사람 50명(A집단), 잡곡만 창작한 사람 50명(B집단), 둘 다 창작한 사람 20명(C집단)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각 집단별로 ‘路吏’, ‘掾吏’ 등의 하급관직자를 제외한 고위관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작가군	인원수	고위 관직자	고위관직자 비율(%)
A집단	산곡만 창작한 작가	50	28	56
B집단	잡곡만 창작한 작가	50	3	6
C집단	산곡 잡곡 겸작 작가	20	2	10

위의 결과를 보면 A집단에서는 절반 이상이 고위관직자임에 비해 B집단과 C집단은 고위관직자 비율이 10%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몽골-원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문인관료 세력이 등장했다고 할 때, A집단 가운데 상당수가 이러한 새로운 문인관료 세력을 이루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대 詩와 송대 詞를 발전시킨 문인관료들의 역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송대 文人詞 작가들이 詩를 기본적으로 지으면서 새로운 장르인 詞를 발전시킨 것처럼, 이들 산곡 작가들 역시 기본적으로 詩詞 특히 詩를 짓는 훈련을 거치고 作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새로운 장르인 산곡을 발전시켜 나간 사람들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B집단과 C집단 사이의 고위관직자 비율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산곡을 함께 창작하기도 했으나 역시 대부분은 잡곡 창작에 매진한 전업 작가들이었다. 이들에게 산곡은 한편으로는 잡곡의 기초를 이루는 노래 단위로서 작곡 연습의 의미를 지니면서

도 일부 작가들은 산곡 특히 小수에 독립적인 예술적 의의를 부여하면서 정서를 담아내는 양식으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몽골 세력이 금을 멸망시키면서 화북 지역을 점령한 13세기 중엽부터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한 13세기 후반 그리고 14세기 초의 십여 년에 이르는 기간은 시문을 이끌어간 전통적 사대부들에게 커다란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文人으로서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전통적 문학 활동을 멈추기도 어려운 도전의 시대였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문인이 커다란 사회적 변동에 직면하여 어떠한 선택을 내리고 어떠한 문학 행위를 전개해 갔는지를 산곡과 잡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이들 文人 가운데 소수의 일부는 몽골의 필요에 의해 고급관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전통 시문을 꾸준히 창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흥 장르인 散曲을 받아들여 문학적 실험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文人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경제적 여유를 가진 일부는 재야에서 詩文 창작에 매진하고, 그렇지 못한 다수는 통속적 신흥 장르인 雜劇의 창작과 편찬에 뛰어들어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펼치면서 새로운 문인의 지위를 형성해나갔다. 王國維가 몽골-원대를 대표하는 문학으로 雜劇을 꼽은 이유는 그것이 문학적, 예술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회변동론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시대의 다수 문인들이 잡극 창작과 편찬에 참여하여 시대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작가 정신을 작품에 투영해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잡극의 시대적 의의는 적극적으로 평가될 만하다. 이에 비해 散曲 작가 가운데 고위관직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散曲이 唐詩와 宋詞의 뒤를 이어 사대부로서의 자기인식을 지닌 文人들이 새롭게 받아들인 장르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산곡과 잡극은 몽골-원

대를 거치면서 당송대의 경험을 이어 새로운 음악-문학으로 형성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사회적 계층 면에서 담당자는 상당히 달라서 이전 시대에 비해 다양하게 분화된 문학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분화 현상은 명대에 보다 공고해지고 소설, 산문 등의 다른 장르의 문학이 성숙되고 재분화되는 기원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사회변동에 따른 문학 활동의 분화는 현재보다 한층 더 적극적 의의를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 鍾嗣成, 《錄鬼簿》. 《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 제2권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59) 수록본.
- 王國維, 《宋元戲曲考》. 《王國維戲曲論文集》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4) 수록본.
- 季國平, 《元雜劇發展史》 (臺北: 文津出版社), 1993.
- 김진곤, 《송원 평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鄧紹基, 《元代文學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1.
- 廖奔 등, 《中國戲曲發展史》 (太原: 山西教育出版社), 2000.
- 楊鐮, 《元代文學編年史》 (太原: 山西教育出版社), 2005.
- 楊鐮, 《元詩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3.
- 吳松弟, 《中國人口史》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1.
- 齊森華 등 主編, 《中國曲學大辭典》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7.
- 줄고, <송금원 연행문학사의 재인식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중국문학》 (한국중국어문학회) 제35집, 2001.
- 주채혁, 《원조 관인층 연구》 (서울: 정음사), 1986.
- Franke, Twitchett,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Stephen H. West, "Mongol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Northern Drama", in John D. Langlois, Jr. ed., *China under Mongol Ru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中文提要>

從窩闊台率領的蒙古軍隊佔領金朝最後的都城的1234年，到元世祖忽必烈最終滅亡南宋的1279年前後幾十年是中國歷史上社會變動較大的時期。這個社會大變動中，對傳統文人士大夫影響最大的變化之一是科舉的中斷。大部分的傳統文人不能再通過科舉進入高級官僚社會，極小的一部分通過薦舉等方式才能成為高級官員。在這樣的背景下，出世的道路一時被斷絕的大多數文人們感到的困惑可以想象的。本論文探討這時期文人的文學活動的變化和分化。

首先調查《中國曲學大辭典》收錄的蒙古—元時期70名主要散曲作家的身份，查明了調查對象的64%(45名)是官職經驗者，其中高級官職經驗者的比率是64%(29名)，下級官職經驗者的比率是12%(12名)。這個結果表明不少的蒙古—元代散曲作家積極接收新王朝的統治而作為它的臣僚。同時調查該辭典的42名雜劇作家的身份，查到了調查對象的大部分是沒有進入官途者或下級官員。這個結果告訴我們該時期雜劇是脫落在民間的多數文人在沒有出路的環境下，為了找到生計和文學創造出路，他們積極參與當時民衆喜歡的戲劇活動，撰寫不少的優秀雜劇劇本。

散曲和雜劇同是在時代變革時期成長的新文藝形式，但高級文人和下級文人個別享受散曲和雜劇。高級文人是前代已有傳統，與此相比，下級文人的出現是前所無有的新現象，這有力證明蒙古—元代文人的文學活動的新分化。

주제어 : 蒙古—元代, 社會變動, 文學活動, 文人, 士大夫, 散曲, 雜劇